

트라우마 기억의 관점에서 분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태극기집회 참여 현상

전순영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전문연구위원)*
김완기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박사과정)**

I. 들어가는 말

II. 교회의 정치참여와 이념갈등

1. 보수교회의 정치참여사
2. 태극기집회의 기독교인들
3. 코로나 시기 8·15집회의 기독교인들
4. 교회 내부의 이념갈등

III. 한국교회의 트라우마 기억: 전쟁과 핍박

1.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기의 기독교인 박해
2. 한국교회의 반공주의
3. 트라우마 기억과 공포

IV. 나가는 말: 보수 기독교인들의 기억 치유를 위한 제언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8.09>

* 주저자, 교신저자, sychon@naver.com

** 공동저자, revsolomon@naver.com

• ABSTRACT •

An Analysis on Conservative Christia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Protests called 'Taegeukgi R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raumatic
Memory

Researcher, Jeon, Sun Young (Soongsil University)
Ph.D Candidate, Kim, Wan Ki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o overcome traumatic memory of conservative Christians as a solution to ideological conflict within the church by presenting a view to analyzing their active involvement in political rallies as excessive psychological anxiety caused by historical trauma. The traumatic memory of the great misdeeds and persecution of the Korean War has not yet been overcome, causing fear to most conservative Christians. War experiences are so powerful that they tend to become worldview beliefs, and these internalized beliefs have had a lasting impact on the next generations who did not directly experience war i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Such an analysis explains a lot about why conservative Christian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olitical rallies than other groups, and how their political consciousness is combined with religious beliefs. According to the memory discourse of Miroslav Volf, memory should be redeemed. The healing of traumatic memory consists of three steps: securing safety and restoring control, accepting traumatic memory as part of life, and re-connecting with the others. Therefore, rather than unconditionally criticizing conservative Christians participating in Taegeukgi rally, it would be necessary to help them to have confidence in the stability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in order to relieve their fear of war, persecution of Christianity, and return to poverty.

Key words: Conservative Christians, Taegeukgi Rally, Korean War, Traumatic Memory, Miroslav Volf

I. 들어가는 말

2020년 한국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오랜 장마, 연이은 태풍 피해로 총체적 난관을 겪었다. 한국정부는 ‘K방역’이라는 또 다른 K시리즈의 성공을 목전에 두고 터진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 사태로 경기침체 위기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였다. 이 사태의 주역으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는 시종일관 반정부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신과 사랑제일교회가 피해자임을 강변하여 다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보수교회의 정치참여를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기독교인 다수가 집결한 정치집회의 효시는 2003년 구국기도회였다.¹⁾ 진보 정부 집권기에 활발하던 정치집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잠잠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201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의로 발표된 ‘시국선언문’의 핵심은 이른바 현 ‘좌파정권’이 나라를 ‘종북화·공산화’하려고 하며,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라를 ‘70년대 경제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다.²⁾ 선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하면, 공산주의와 경제적 빈곤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와 중도, 진보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라도 일부 극우 또는 극좌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갈등을 통하여 문제의 근간이 드러나며 대화와 협상,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적 해결의 수순이

1) 이철, “개신교 보수교단 지도자들의 어제의 정교분리 오늘의 정치참여: 분리에서 참여로의 전환에 대한 이유와 명분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37(2018), 150-151.

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19년 6월 7일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시국선언문,” http://www.cck.or.kr/khnet2/board/view.php?id=723&code=news_2011&cate=&start=10&category=&word=&viewType=&category_id= (2020.9.18.)

다. 그러나 문제는 자명한 정치적 사안에 종교집단, 특히 보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하면서 여기에 신앙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 전광훈의 추종자 중에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청년들도 적지 않으며, 교파를 초월하여 다양한 층위의 신자들이 그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다. 최근 몇몇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정치적 집회나 활동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⁴⁾ 그러나 광화문에 모여든 기독교인들은 나름의 명분과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해왔고, 상당수는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닌,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견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무엇을 확신하는가? 타 종교에 비해 유독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다가 교회연합기구의 수장을 지낸 목사의 입에서 ‘순교의 각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 논문은 보수 기독교인들의 정치집회 참여 현상을 집단적 트라우마 기억의 발현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현대 기억 논쟁을 지배하는 관념은 트라우마 기억이며,⁵⁾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 역사의 트라우마는 20세기 후반을 기억과 증언의 시대로 만들었다.⁶⁾ 전쟁 기억은 대표적인 트라우마 기억이자, 개인적 기억이면서 동시에 집단기억이다.

3) 본 연구에서 ‘보수 기독교’는 한국의 주류 교회 가운데 신학적·정치적 보수성향이 강한 그룹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보수 기독교는 단일 연합체가 아니며, 그 안에도 다양한 갈등과 역학 구도가 있다.

4)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20년 1월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 정치집회 참여에 대한 반대는 일반인 84%, 기독교인 81%로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2020년 8월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서도 목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기독교인 의견을 물어본 결과, 73%가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 반대했으며, 81%는 정치적 집회나 활동 참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5) 서길완, “기억, 트라우마, 증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4.

6) 권윤경, “기억의 경쟁에서 기억의 연대로: 홀로코스트와 프랑스 탈식민화 기억의 다방향적 접합,” 『역사비평』 113(2015), 370.

전쟁의 상처는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기억으로 반복 재생산한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반응들이 나타난다.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핵미사일 도발 등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편에서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조성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안보불감증이 동시에 작동된다. 선거철이 되면 여전히 중복물기가 암암리에 재현되고, 좌파라는 색깔론은 진보적 정치인들의 입지를 현저히 약화시킨다.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은 장기화되고 있고 국민 여론은 대북제재, 비핵화, 통일, 탈북민, 북한인권, 대북지원 등 거의 모든 이슈에서 세대별 시각차를 보이며 분열되어 있다. 마치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남한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합리적 행위를 방해하는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이 현상이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고 부르는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보았다.⁷⁾ PTSD는 외상 경험 이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도 과거를 기억하거나 연상할 때 정서적 마비 또는 과각성(過覺醒)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한국전쟁 후유증을 PTSD로 진단하는 이유는,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막론하고 한국전쟁을 기억하거나 연상시키는 사건과 상황에서 동일하게 인격 왜곡적인 기계적 반응을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체험한 세대에겐 전쟁 기억은 세계관적 신념으로 자리잡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강력한 경험이라는 의미이다. 그 경험은 내재화되어 7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부 주도의 반공·안보교육 등을 통하여 전후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일종의 ‘시대정신’ 역할을 해왔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이 한국전쟁의 여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면서, 후체험세대에서도 가해와 피

7) 김성민 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인문학』(서울: 알렘, 2015), 167.

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후체험세대의 트라우마는 전쟁 기억 자체보다는 전쟁 기억으로 인해 구조화된 기억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전쟁의 기억’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체험담에 기반하지만 이러한 체험담들이 쌓이면서 세월이 흐르면 ‘전쟁의 기억’보다 더 강력한 ‘기억의 전쟁’으로 변하면서 공적 전쟁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⁸⁾ 전쟁 당시의 경험은 현재 각자의 입장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고, 사적 담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공적 담론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보수진영에는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월남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체험적 반공주의와 적화통일을 막아준 ‘은인’인 미국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악행과 핍박의 트라우마 기억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채 대다수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도 전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로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재가 그들의 공포를 상존적 실재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정치집회 참여 현상은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비해 정치집회 참여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종교적 신념과 결합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보수교회의 정치참여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태극기집회의 이념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이념갈등의 뿌리가 분단 이후 한국전쟁 전후 공산당에 의한 고난과 핍박에 따른 한국교회의 트라우마적 집단기억에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트라우마 기억을 치유하고

8) 김경섭, “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전쟁,” 『통일인문학』 57(2014), 66. 김경섭은 ‘전쟁의 기억’은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기억이고, ‘기억의 전쟁’은 전쟁과 관련되어 전해지거나 구조화된 담론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극복하기 위한 신학적·정신의학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II. 교회의 정치참여와 이념갈등

1. 보수교회의 정치참여사

보수교회는 보수정권 유지를 위한 선거 운동과 보수정권의 정책에 대한 적극 지지 형태로 정치참여를 해왔다. 보수교회의 정치참여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승만은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⁹⁾ 확고한 친미사상에 반공사상까지 겸비한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보수교회의 정치적 대변인과도 같았다. 그래서 보수교회는 1952년 8월, 제2대 정부통령 선거 당시 이승만을 지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고, 그에게 투표하는 것을 “조국을 사랑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된 의무”로 명명하였다.¹⁰⁾ 더 나아가 1956년 3월,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중에는 그를 “한국의 모세”라 칭송할 정도였다.¹¹⁾ 이승만 하야 이후에 보수교회의 친(親)정부 성향은 박정희 정권에서도 이어졌다.¹²⁾ 그 이유는 보수교회와 박정희 정권이 공유한 반공 프레임이 보수교회의 정치참여가 유지될 수 있는 연결고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교회는 박정희 정권의 군사 쿠데타를 국가 안위를 위해 정당화했고,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에 국민은 군사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하였다.¹³⁾

9) Chung-shin Park, “The Protestant Church as a Political Training Ground in Moder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1(2007), 4.

10)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 의식』(서울: 지식산업사, 1991), 339.

11) 『기독교공보』(1956.5.28); 양낙홍, “한국장로교 정치참여와 민주화운동”; 박용규·이은선 편,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333.

12) Chung-shin Park,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171.

13)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291-292.

더 나아가, 이 시기 보수교회는 정권 적극 지지의 행태를 국가조찬기도회로 보여 왔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5년 2월 국회의원들의 기도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이 기도회에서 보수교회는 유신을 지지하며 대통령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보수교회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해 왔고,¹⁴⁾ 이후 국가조찬기도회는 박정희에서 노태우 정권까지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기도회로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국가조찬기도회의 주류를 이루는 보수교회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대를 잇는 ‘장로 대통령’ 부재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제13, 14대 대통령 선거 때 김영삼 후보를 공개지지했고, 이런 현상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로 이어졌다. 이들은 각각 월남 목회자인 김창인 목사(충현교회), 광선회 목사(소망교회)가 설립한 보수 기독교의 대표격인 교회들의 장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수교회는 전쟁의 기억과 트라우마적 공포를 보수정권 유지로 귀결시켰고, 반공과 승공의 연속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애국심이자 신앙심으로 승격시켰다.

2. 태극기집회의 기독교인들

태극기집회와 관련하여, 정체성의 틀로 인구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 황선영(2018)은 집회 참여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낮은 교육수준, 높은 연령대, 정치 성향으로는 중도 47%, 보수 42%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¹⁵⁾ 이 연구는 이들의 정체성이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국가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며, 박근혜 탄핵사태로 인한 정체성 위

14)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서울: KMC, 2010), 253.

15) 황선영, “정치 시위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태극기집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58.

기감이 집회 참여 동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비록 직접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정체성 위기라는 틀은 8·15집회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조적으로 최종숙(2018)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도성향의,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 그리고 중간소득층이 태극기집회를 이끌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소득이 안정적인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했다.¹⁶⁾ 그러나 이 조사 역시 실제 참여자 비율이 낮고 지지자와 참여자 데이터를 혼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2018년 집회 주최 측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대졸 중산층 이상”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여 최종숙의 연구를 뒷받침했다.¹⁷⁾ 이정엽(2017)은 태극기집회를 노년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진영 최초의 자발적 대중 정치집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¹⁸⁾

특히 기독교인 참여에 주목한 김진호(2017)는 동원된 소극적 기독교인들(주로 노년층, 탈북자들, 일당을 받는 ‘알바들’, 기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신비주의자 또는 ‘광신자들’, 그리고 극우 NGO활동가들로 집회 참여 부류를 구분했다.¹⁹⁾ 그는 특히 극우 청년 활동가들이 집회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았다. 손은실(2019)은 태극기와 성조기로 나타난 보수 기독교의 반공주의와 친미주의가 분단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면서, 한기총을 집회 주역으로 지목했다.²⁰⁾ 장동민(2020)은 90년대

16) 최종숙, “2016-17년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자의 민주주의 의식,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 『KDF 리포트』 29(2018), 12.

17) 정우영, 『조선일보』 2018년 8월 27일자, “태극기집회엔 돈 받고 동원된 노인뿐?... 대졸·중산층이 절반 넘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7/2018082700227.html (2020.9.25.)

18) 이정엽, “문화투쟁과 투쟁의 문화: ‘촛불’과 ‘태극기’의 문화정치,” 『내일을 여는 역사』 67(2017), 39.

19) 김진호, “태극기집회와 개신교 우파,” 『황해문화』 95(2017), 79-80.

이후 한국교회가 정체와 쇠퇴를 겪으면서, 지방의 작은 교회 목회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 성도들이 태극기집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한다.²¹⁾ 국가의 수호자요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세대가 과거의 영광을 부정당한 채 가난하고 외로운 노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만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일부 참여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3. 코로나 시기 8·15집회의 기독교인들

태극기집회는 작년 8월 조국 전(前) 법무부장관 사태가 불거지고 한기총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기독교인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이를 기초로 한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²²⁾에 작년 개천절집회에는 촛불집회의 규모에 맞먹을 정도의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기도 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²³⁾ 시국선언 이후 광화문집회의 구심점이 된 전광훈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기독교자유당의 원내 진출을 목표로 광화문집회를 독자적으로 정치세력

20) 손은실, “광화문광장의 개신교 보수세력 정치집회의 역사적 뿌리,” 『한국여성신학』 90(2019), 25.

21) 장동민, 『뉴스파워』 2020년 8월 25일자, “전광훈 소요사태를 보는 한 전망.” <http://m.newspower.co.kr/a.html?uid=47025> (2020.9.25.)

22) 김진영, 『크리스천투데이』 2019년 10월 3일자, “광화문 집회” 기독교인들은 왜 거리로 쏟아졌나?”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5807> (2020.10.26.)

23) 『MBC뉴스』 2019년 10월 6일자, “촛불 시민이 든 태극기...의미는?” 중에서 시민 인터뷰, “저희 집회에서 동원된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끼리 버스 모집해서 다 그렇게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32835_28802.html (2020.10.26.)

화할 것을 선언했다. 2월말부터 코로나 정국이 전개되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코로나 확산 문제로 방역당국과 교회가 대립하게 된 형국이 었다. 그 결과 올해 8·15집회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 넘는 숫자의 기독교인들을 동원하였다.²⁴⁾ 교인들을 끌고 버스를 대절하여 집회에 참가한 한 목사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에 모였다고 말했다.²⁵⁾ 따라서 이번 8·15집회는 과거부터 보수교회를 규정해온 ‘신앙과 애국심’의 발로였고, 전광환을 중심으로 개인적 의사 또는 지도자들의 권면에 의해서 다양한 층위의 보수성향 기독교인들이 결집한 집회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정치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8·15집회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할 때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이 집회 참가에 부정적일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주장이 전체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유력 기독교 지도자들

24) 이 집회에는 당국 추산 4만 3천 명, 서울시 생활인구데이터 추산 8만 균중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집회의 메인 무대에는 “문제인 퇴진 국민대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분회파” “광화문 이승만광장” 등의 문구로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나라가 니꺼냐?”, “문제인을 파면한다” 등의 전단지가 뿌려졌다. 당시 서울시 생활인구데이터에 따르면 광화문·경복궁역 일대에 최대 13만 명이 있었는데, 이는 평소보다 8만 명이 더 많은 숫자였다. 영남과 호남, 충청 지역에서는 8천여 명이 버스를 대절하여 상경했다. 기독교자유당 관계자들과 사랑제일교회 등이 대량 문자를 발송하여 참여를 독려했으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문자 126만 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MBC뉴스』 2020년 9월 15일자, “광복절집회 나와라...126만 명에 문자 뿌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1012_32524.html (2020.10.5.)

25) 미래목회포럼 대표이자 대전 송촌장로교회 담임인 박경배 목사가 8월 23일자 설교에서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발언을 녹취한 내용의 일부이다. 김동문, 『드림투게더네트워크』 2020년 9월 2일자, “박경배 목사, ‘광화문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입니다.’” <http://www.thedreamtogeth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 (2020.10.26.)

과 교인들이 광장에 나서서까지 현 정부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룹별 아젠다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집회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현 정부가 적대적인 좌파정권으로서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지지하며, 방역을 빌미로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다고 의심한다. 여기에는 한기총 및 기독교정당 관계자들, 장로들, 목회자들과 이들의 요청에 부응한 교인들, 우익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다.²⁶⁾

4. 교회 내부의 이념갈등

전광훈과 8·15집회 사태는 교회의 정치참여와 이념지향에 대한 잠재적 갈등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김회권(2020)은 현 정권과 그것이 시도하는 사회정치적 변화를 심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광훈과 기독교 주류교회가 거의 유사하다고 진단한다.²⁷⁾ 양자는 현 정권이 방역정국을 이용해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 신앙의 외해를 시도한다고 의심한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시국에 매일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통곡을 외면한 채, ‘목숨보다 더 소중한 대면예배의 자유’

26) “나는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 (중략) ... 교단, 개교회를 초월해서 범교회적으로 참여, 지원해야 합니다.” (김진홍 목사), “한국교회의 상징이 되는 영락교회 장로들이 일어난 거야, 두 번째는 새문안교회 장로들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일어난 거야,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일어섰어”(전광훈 목사)와 같은 발언이 『MBC PD수첩』 8월 25일자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hMGVH0m5J4> (2020.10.27.) 8·15집회에 대한민국장로연합회(대장연) 소속 장로들이 배후에 있다는 보도는 CBS에서 나왔다. 김태현·오요셉, 『CBS 노컷뉴스』 2020년 8월 26일자, “거리 나선 ‘정치 장로들’... 광복절 집회 조직적 참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400938> (2020.10.5.) 한편, ‘우익 청년’의 존재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2020.10.14.)에 의하면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20대 개신교인은 2019년 12.7%에서 2020년 22.3%로 증가했다. 타 연령대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27) 김회권, “코비드19 환난, 기독교 주류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 『KPI Issue Brief』 5(2020.9.23.), 3.

만을 소리 높여 옹호하는 한국 주류교회가 한국사회와 교인들에게 외면 받고 거부당할 것을 우려했다. 사회적으로 악화된 대(對)교회 인식이 가져올 파장이 교회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²⁸⁾ 기독교 진보진영에 속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비롯하여, 기독교 원로들과 한국목회자협의회 등에서도 전광훈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집회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면서, 기독교 내부의 갈등도 가시화되고 있다.²⁹⁾ 이처럼 현실적으로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려고 하는 행위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교회 내의 이념갈등을 심화시키고 전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들에게는 정치이념이 신앙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원호(2020)가 지적하듯이, 기독교 신앙과 정의의 이름으로 당파적인 정치이념 혹은 경제이념에 근거해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³⁰⁾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분단구조라는 환경과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28) 실제로 2020년 7월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코로나 사태 이후 일반 국민이 종교인을 보는 시각을 조사한 결과, 불교와 가톨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반면,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 2020년 7월 17일자.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949&code=0404&trendType=CKOREA> (2020.10.5.)

29) 기독교 원로들(김동호·김명혁·박종화·유경제·이정익·홍정길 목사 등 31인)은 “교회와 교회기구를 정치화 내지 정치집단화의 발판으로 삼는 전광훈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국민일보』, 2019년 6월 18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06613&> 2020.10.26),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 지형은 목사)는 조속한 전광훈 이단판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CBS 노컷뉴스』, 2020년 8월 20일자, https://m.nocutnews.co.kr/news/5398227#_enliple 2020.10.26.)

30) 정원호,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사이에서—기독교인의 반정부적 정치참여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47(2020), 287.

있다. 적대적 분단이 지속되는 한반도 상황이 트라우마 기억을 고착화시키고 세대를 거쳐 전수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한국교회 이념갈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당수 교인들 내면에서는 여전히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³¹⁾ 해방 후와 전쟁기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트라우마 기억을 극복하는 데 일반인들에 비해 더 특수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III. 한국교회의 트라우마 기억: 전쟁과 핍박

한국전쟁은 한국교회에 반공주의를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한 바탕이 되었다.³²⁾ 전쟁은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되고, 자신과 타인에게서 추악한 인간성의 민낯을 보게 했으며, 공포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오직 자기보존적인 냉혹한 세계관의 정당성을 체화시킨 경험이었다. 해방 후 공산주의 자들과 충돌하면서 생존을 위협당하고 전쟁 중에 또 다시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는 월남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기독교인 피해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남한 교회에서는 월남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그들의 극단적 반공주의가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과 결부되어 대다수 교회에 확산되었다.³³⁾ 전쟁체험으로 체화된 반공

31)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의 「2020 통일의식 조사」(2020.10.13.)에서 일반인의 정치성향은 진보 51.0% > 중도 28.2% > 보수 19.7%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2020.10.14.) 결과를 보면, 개신교인들의 정치성향은 중도 39.8% > 진보 31.4% > 보수 28.8%로 나타났고, 신앙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36%에 이를 정도로 보수의 비율이 높아졌다. 비율 분포로 보자면 한국교회는 일반사회에 비해 더 심각한 갈등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32) 고영은, “한국교회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 연구,” 『신학과 실천』 52(2016), 886.

33) 전순영,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담론에 의거한 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구,” 『신학사상』 185(2019), 419.

주의는 북한정권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에게 북한은 공산주의와 동의어였고, 이렇게 고착화된 시각은 구소련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제연대가 해체된 탈냉전시대에도 변화되지 않았다. 전쟁의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공포가 여전히 한국교회 주류인 보수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1.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기의 기독교인 박해

1945년 8월 해방 이후 기독교인 박해는 한국전쟁 이전에는 종교 활동의 제한, 한국전쟁 중에는 학살의 형태로 일어났다. 종교 활동의 제한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초기에 소련 군정과 김일성은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듯하였다. 당시 소련의 점령정책 제6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4조는 예배와 종교 시설을 보호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상은 정권의 감시와 견제가 따르는 제한된 종교 자유였다.³⁴⁾

하지만 1948년 9월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북한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는 노골적으로 행해졌다.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재산 몰수, 교역자 감시 및 숙청, 예배 방해가 이루어졌고,³⁵⁾ 일부 교인들은 사유재산을 몰수당했다. 이와 더불어 해방 정국에서 결성된 기독교인 중심의 정치 단체들도 박해 대상이 되었다. 평남건국준비위원회, 기독교사회민주당, 조선민주당이 결성될 당시에 북한의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했기에,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정권 수립을 위해 기독교계 정치 단체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탁통치 반대

3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I』(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45.

35) 변진홍, “북한 ‘침묵의 교회와 공산주의’”; 김홍수 편, 『해방후 북한교회사』(서울: 다산글방, 1992), 97.

여론이 기독교계 정치 단체에서 일어나자 갈등이 발생했고, 기독교 지도층 인사들이 숙청되는 일을 겪으면서 기독교인들 다수가 조직에서 탈당하고 정치 단체가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들로 약 10~15만 명의 북한 지역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하였고,³⁶⁾ 이들은 강력한 반공·반북 성향의 집단적 결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반공사상이 형성된 상황에서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아울러 가족 상실과 핍박의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 중심에는 공산주의자 및 인민군에 의해 행해진 기독교인 학살 사건이 있다. 대표적인 학살 사건은 1950년 7~10월에 충남 논산 병촌교회, 전남 영광 야월교회, 염산교회, 전남 무안 복길교회 등지에서 발생하였다.³⁷⁾ 기독교인 학살 사건은 전쟁 개시 3~4개월간 남한 지역 대부분이 인민군에 점령당했던 시기에 발생했는데 전쟁 초창기에는 피난 행렬에 가담하지 않은 교역자가 납북되거나 살해당했지만, 이후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독교인 전체가 학살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전쟁의 경험은 무자비한 학살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공산당의 핍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체험적 반공주의자가 되었다.

2. 한국교회의 반공주의

한국교회는 분단체제 하에서 강력한 반공집단으로 기능해왔다. 해방 후 남한 기독교인 숫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월남과 그들의 반공주의는 남한교회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했다. 교회조직은 지도자들의 생각이 설교를 통해

3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86-8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I』, 45.

37) 김현곤,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서울: TOBIA, 2020), 11-12.

전수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전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인식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다.³⁸⁾ 진보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반정부투쟁에 나서면서 반공주의로부터 서서히 탈피한 반면에, 정권친화적이던 보수교회에서는 반공과 애국과 신앙이 여전히 동의어로 인식되었다. 정성한(2003)은 이 시기 보수진영의 통일운동을 ‘북한선교’, 진보진영의 통일운동을 ‘기독교 통일운동’으로 칭하면서, 1980년대부터 양 진영의 대북관과 통일관이 그 신학적 성향에 따라 확연히 구별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³⁹⁾ 강인철은 교리와 신념체계, 교회법규와 제도, 전쟁기념의례, 순교담론 등이 반공주의의 종교적 심화기제들이었고, 기독교연합단체들과 공산권 선교방송을 비롯한 북한선교단체들이 그 주체와 조직 역할을 했으며, 군중제도와 경목제도, 형목제도와 조찬기도회 등의 제도들이 기독교 반공주의를 전파하는 사회기제였다고 분석한다.⁴⁰⁾ 이처럼 효과적으로 작동한 기제를 통해 ‘신앙화된’ 반공주의는 군사독재정권 시기 공교육에서 반공주의를 주입받고 성장한 자녀세대에게 침투되었다. 이들은 지금 한국사회의 중추를 감당하는 중년세대로 교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 부모세대의 전쟁기억이 자녀세대까지 전이된 것이다. 이렇게 전이된 트라우마 기억을 강화시키는 현안들도 계속 발생했다. 특히 보수교회가 북한에 적대감을 갖게 되는 현실적 장애물로는 북한정권의 탄압으로 인한 북한교회의 철저한 파괴,⁴¹⁾ 수령

38) 전순영, “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41.

39) 정성한,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사』(서울: 그리심, 2003), 377-378.

40)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서울: 중심, 2007), 297-386.

41) 김병로는 1950년 판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65)에 의하면 1950년 이전 북한 지역에 2,000여 교회에 20만여 명의 교인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북한 지역 기독교인의 숫자는 해방 전 기독교인들의 후손인 ‘그루터기’ 교인과 탈북 후 제3국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북한으로 돌아온 지하교인들을 합쳐 5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병로 외, 『그루터기』(서울: 박영사, 2020), 17.

승배가 만연해있는 현실, 강제수용소의 존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지는 기독교 핍박과 인권유린 상황, 기독교 선교사 억류 등을 꼽을 수 있다.

3. 트라우마 기억과 공포

보수 기독교인들의 두려움을 요약하면, 첫째는 공산화, 둘째는 기독교 탄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국을 잃었을 때의 그 고난의 역사를 보아 왔으며, 공산주의 치하에서 교회가 박멸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⁴²⁾이다.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은 가족과 경제기반 상실, 기독교 신앙 박해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의 교회 공동체적 집단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트라우마 기억에 의한 속박은 과거 냉전시대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용서와 화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개인과 교회의 전향적 변화를 저해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출신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기억이 개인을 치유하고 폭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악행의 기억 자체에 고통과 고난이 연루되어 있고 때로는 그 기억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억이 “방패와 칼”의 양가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관점을 제기한다.⁴³⁾ 과거 폭력의 기억은 당시의 고통과 공포를 지금 여기로 소환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볼프의 표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바로 그들의 기억 때문에 가해자가 된다. 기억이라는 보호의 방패는 폭력의 칼로 쉽사리 탈바꿈한다.”⁴⁴⁾ 과거 폭력의 기억은 당시의 고통과 공포를 지금 여기로 소환하기 쉽기 때문이

42) 샬롬나비,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성명서에 대한 논평서.” http://shalomnabi.com/bbs/board.php?bo_table=data11&wr_id=129 (2020.10.5.)

43) Miroslav Volf, *The End of Memory*, 홍종락 역. 『기억의 종말』(서울: IVP, 1996), 55.

44) 위의 책, 55.

다.⁴⁵⁾ 기억에 대한 그의 관점은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기에 공산당에 의한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죽음의 공포, 가족과 친척 학살, 재산박탈, 이산과 유랑의 고통이 핵심 기억으로 보존된 세대는 그 기억을 폭력의 칼로 변모시켰다. 그 칼날은 북한, 그리고 친북 또는 종북으로 의심되는 진보주의자를 겨냥하며, 때로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모든 타자를 향한다.⁴⁶⁾

그러나 트라우마 기억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용서와 화해로 치유될 수 있다. 용서와 화해의 근거는 가해자의 선제적 회개나 사과, 또는 행위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롬 5: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와 같은 성경구절들은 인간 편에서의 여하한 선행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이다. 실제로 트라우마 기억을 극복한 사례들을 보면 그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치유를 경험한 예가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23명의 교인이 학살당한 전북 정읍 두암교회이다. 학살 사건 이후 인민군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교인 학살에 가담했던 3명의

45) Richard J. McNally, *Remembering Trauma* (Cambridge, MA.: Belknap Press, 2003), 32.

46) 이러한 시각은 진보정부의 대북지원,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점의 비판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반정부집회에 참여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현 정부를 중북좌파로 간주하는 데서 이러한 ‘색깔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8·15집회 중에서, “그들의 목적지는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문재인이 대통령 연설할 때에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중략)… 결국은 1국가 2체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중략)…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전광훈) 발언 참조. 『뉴스데일리베스트』 2020년 8월 15일자. <https://www.youtube.com/watch?v=ygk3WZryZqc&t=310s> (2020.10.27.)

주인이 회개하자, 재건된 두암교회는 이들을 성도로 받아들여 같이 신앙 생활을 했다.⁴⁷⁾ 뿐만 아니라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이 학살당했으나 가해자인 안재선을 사형 직전에 구명하여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용서한 손양원 목사의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동일하게 공산 당에 의한 부친의 피살을 경험한 김명혁 목사와 김상근 목사의 경우, 자신들은 원래 철저한 반공·반북주의였지만 오랜 세월 내면의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해와 용서의 명령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⁴⁸⁾ 이들의 트라우마 기억 치유에는 민주화와 체제안정에 따른 안전감 확보, 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도 증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의 연대와 지지 등의 요소가 작용했으며, 이로써 내면에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트라우마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러한 사례들은 과거 악행의 기억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들에게 치유의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IV. 나가는 말: 보수 기독교인들의 기억 치유를 위한 제언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억의 치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와 관계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한다. 볼프에게 화해란, 회개와 용서를 통해 적대적 타자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기억을 치유하며 타자를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이 구원이 되려면 구속(redeem)받아야 한다고 믿는 볼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악이 궁극적으로 패배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확신에 기초하여, 악행의 기억을 인생사의 일부로 통합하여 받아들일 것,

47) 김현곤,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 55.

48) 전순영, “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구,” 41.

49) 위의 논문, 212.

과거 악행이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압도하지 못하게 할 것,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를 통해 치유를 완성할 것을 제시했다.⁵⁰⁾ 볼프와 매우 유사하게, 정신의학자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 역시 외상경험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되기 위한 과정으로 3단계의 절차를 제안하였다.⁵¹⁾ 안전을 확보하고 인식하는 단계, 외상기억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외부세계와 재연결되는 단계가 그것이다. 볼프와 허먼이 제시하는 트라우마 극복 방안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첫째, 보수 기독교인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인식하려면, 우선 정치집회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공산화와 기독교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화와 체제안정에 따른 안전감의 확보,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공유, 소속된 교회 공동체의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교회는 대다수 교인들이 반대하는 집회참여 방식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한국사회와 정부는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배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전쟁과 기독교 박해, 빈곤으로의 회귀에 대한 트라우마적 공포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직접체험이든 간접체험이든, 기독교인으로서 겪은 악행의 기억을 각자 자기 인생사의 일부로 통합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전쟁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나 이념적 논리보다 역사를 넘어서는 신적

50) Volf, 『기억의 종말』, 110-119.

51) Judith L Herman, "Recovery from psychological trauma,"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2/1 (1998), 98.

섭리와 소명의 자각으로 전쟁과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줄 책임이 있다. 분단극복을 위한 평화통일신학 정립이 시급히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셋째, 기독교인과 한국교회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가해자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탈냉전 시대의 외부세계와 재연결되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집단 중 하나로서, 누구보다도 화해를 선도할 자격이 있다. 교회는 진영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통일신학을 공유하고 교인들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투신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민 지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는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치유하는 성숙한 화해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자기희생과 겸손한 섬김과 선행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경험이 축적된다면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통합 문제에서 교회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집회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보수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치집회에 관여하는 현상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과도한 심리적 불안으로 분석하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교회 내 이념갈등의 해결책으로 트라우마 기억의 치유와 극복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
- 고영은. “한국교회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 연구.” 『신학과 실천』 52(2016), 867-893.
- 권윤경. “기억의 경쟁에서 기억의 연대로: 홀로코스트와 프랑스 탈식민화 기억의 다방향적 접합.” 『역사비평』 113(2015), 370-397.
- 김경섭. “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전쟁.” 『통일인문학』 57(2014), 63-89.
- 김병로 · 윤현기 · 이원영 · 천지혁. 『그루터기』. 서울: 박영사, 2020.
- 김성민 · 박영균 · 이병수 · 김종근 · 박민철 · 최원 · 조배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인문학』. 서울: 알렙, 2015.
- 김진호. “태극기집회와 개신교 우파.” 『황해문화』 95(2017), 76-93.
- 김현근.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 서울: TOBIA, 2020.
- 김희권. “코로나19 환란, 기독교 주류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 『KPI Issue Brief』 5(2020), 1-6.
- 박용규 · 이은선. 『한국장로교회 회고와 전망』.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 김홍수 편. 『해방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 서길완. “기억, 트라우마, 증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손은실. “광화문광장의 개신교 보수세력 정치집회의 역사적 뿌리.” 『한국여성신학』 90(2019), 24-39.
-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광주: 한울아카데미, 2015.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 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 이정엽. “문화투쟁과 투쟁의 문화: ‘촛불’과 ‘태극기’의 문화정치.” 『내일을 여는 역사』 67(2017), 38-51.
- 이철. “개신교 보수교단 지도자들의 어제의 정교분리 오늘의 정치참여: 분리에서 참여로의 전환에 대한 이유와 명분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37(2018), 143-176.
- 전순영. “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_____.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담론에 의거한 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

- 구.” 『신학사상』 185(2019), 406-438.
- 정성한.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사』. 서울: 그리스, 2003.
- 정원호.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사이에서—기독교인의 반정부적 정치참여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47(2020), 259-291.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 최종숙. “2016-17년 촛불·태극기집회 참여자의 민주주의 의식,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 『KDF 리포트』 29(2018), 1-24.
- 황선영. “정치 시위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태극기집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Herman, Judith L. “Recovery from psychological trauma,”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2/1(1998), 98-103.
- McNally, Richard J. *Remembering Trauma*.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2003.
- Park, Chung-shin.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 _____. “The Protestant church as a political training ground in moder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11(2007), 1-15.
- Volf, Miroslav. *The End of Memory*. 홍종락 역. 『기억의 종말』. 서울: IVP, 1996.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기초보고서」 (2020)
- 목회데이터연구소. 「Numbers」 21(2019, 11, 6.); 61(2020, 8, 28.)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20 통일의식 조사」 (2020)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2020)
- 살롬나비 홈페이지 (<http://shalomnabi.com>)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홈페이지 (<https://www.trendmonitor.co.kr>)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cck.or.kr>)
- 『국민일보』. 2019.6.18. “기독교 원로들, “우리는 전광훈 목사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06613&>
- 『뉴스테일리베스트』. 2020.8.15. “8.15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연설, 동시통역 여성분의 대활약.” <https://www.youtube.com/watch?v=ygk3WZryZqc&t=>

310s

- 『뉴스파워』. 2020.8.25. “전광훈 소요사태를 보는 한 전망.” <http://m.newspower.co.kr/a.html?uid=47025>
- 『드림투게더네트워크』. 2020.9.2. “박경배 목사, ‘광화문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입니다.’” <http://www.thedreamtogeth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
- 『CBS 노컷뉴스』. 2020.8.20. “한국목회자협의회, “전광훈, 이단으로 빨리 명시해야.”” https://m.nocutnews.co.kr/news/5398227#_enliple
- 『CBS 노컷뉴스』. 2020.8.26. “거리 나선 ‘정치 장로들’…광복절 집회 조직적 참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400938>
- 『MBC뉴스』. 2019.10.6. “촛불 시민이 든 ‘태극기’…의미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32835_28802.html
- 『MBC뉴스』. 2020.9.15. “광복절 집회 나와라…126만 명에 문자 뿌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1012_32524.html
- 『MBC PD수첩』. 2020.8.25. “긴급취재: 전광훈목사와 팬데믹 (전반부).” <https://www.youtube.com/watch?v=ihMGVHOM5J4>
- 『조선일보』. 2018.8.27. “태극기집회엔 돈 받고 동원된 노인뿐?… 대졸·중산층이 절반 넘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7/2018082700227.html
- 『크리스천투데이』. 2019.10.3. “‘광화문 집회’ 기독교인들은 왜 거리로 쏟아졌나?”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5807>

논문투고일: 2020년 10월 30일

심사개시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1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집회에 관여하는 현상을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과도한 심리적 불안으로 분석하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교회 내 이념갈등의 해결책으로 트라우마 기억의 치유와 극복을 모색하였다.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악행과 꺾박의 트라우마 기억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채 대다수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쟁체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세계관적 신념으로 자리잡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내재화된 신념은 한반도 분단구조 하에서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후세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비해 정치집회 참여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종교적 신념과 결합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담론에 의하면 기억은 구속(redeem)되어야 한다. 트라우마 기억의 치유는 첫째, 안전의 확보와 통제의 회복, 둘째, 트라우마 기억을 인생사의 일부로 수용, 셋째, 외부와의 재연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전쟁과 기독교 박해, 빈곤으로의 회귀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주제어: 보수 기독교인, 태극기집회, 한국전쟁, 트라우마 기억, 미로슬라브 볼프
